

에너지, 원전 의존 벗어나야...

신재생에너지 발전 10% 이상으로 ... 에너지정책 폐기 불가피

민주당 최재천 의원과 고려대 일본연구센터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<3·11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>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.

광운대 전진호 교수는 “정부는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불가피론과 원전산업 육성을 통한 원전 수출입국론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”며 “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전력 수요관리,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통해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이어 원전 폐기를 결정한 독일을 예로 들며 “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%까지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제안했다.

최재천 의원은 “국제 학술대회는 원전 사고가 우리 사회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극복 방안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11/06>